

## 축 사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흥군의회 의장 이재학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오늘 「제48회 고흥군민의 날」 행사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출향 인사와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빛내주신 김승남 국회의원님, 공영민 군수님, 송형곤 · 박선준 도의원님, 그리고 고흥군 의회 동료의원님 들을 비롯한 내빈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습니다. 임인년 새해 아침 찬란한 여명이 밝아온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뒤돌아보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되어 갑니다.

올해도 국내외 정세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양적완화로 인한 전세계적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한 고금리 정책에 따라 물가와 환율이 치솟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값 폭등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 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쌀값은 곤두박질쳐 지역경제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 된 고흥을 다짐하는 「제48회 군민의 날」 을 맞아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군민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고, 모든 역량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향상에 집중하여, 군민의 신뢰속에 희망찬 미래를 견인하는 믿음직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온 군민과 향우가 하나되는 자리입니다. 모쪼록 제48회 군민의 날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여기오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앞날에 행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